

작년 출생아 43만명...역대 두번째로 적어 저출산 심각

90세 이상 사망률 감소, 갈수록 고령화 추세 혼인 전년보다 5.3% 줄고 이혼은 0.3% 늘어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집계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반면 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3년 연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반영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5.3% 감소했지만 이혼은 소폭 늘어났다.

◇지난해 출생아 43만5천300명...역대 두 번째로 적어=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4년 출생·사망통계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43만5300명으로 전년(43만6500명)보다 1200명(0.3%) 감소했다.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정부가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2005년(43만5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출생아 수는 2010~2012년 증가 추세를 보다가 2년 연속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 출생률은 지난해 8.6명으로 전년과 같다. 통계 작성 이래 2년 연속 역대 최저치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21명으로 전년보다 0.02명 늘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서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으로 회복하다 2013년 '초저출산'의 기준선 아래인 1.19명으로 떨어졌다.

초저출산의 기준선은 1.30명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연령별 출산율은 20대에서 감소하고 30대에서 증가했다. 특히 30대 후반(35~39세)의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율은 43.2명으로 전년보다 3.7명 증가했다.

만혼이 증가하면서 산모의 평균 연령은 32.04세로 0.2세 올랐다. 산모 평균 연령은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비율은 21.6%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735명 사망...90세이상 사망률 ↓=지난해 사망자는 26만8100명으로 전년(26만6300명)보다 1900명(0.7%) 증가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735명꼴로 사망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5.3명으로 3년 연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조사망률은 2004~2009년 최저 수준인 5.0명을 유지하다가 2010년 5.1명, 2011년 5.1명,

2012년 5.3명으로 올랐다. 사망자 수는 10대·50대·80대 이상에서 증가했다. 연령별 사망률(해당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은 대부분 연령층에서 전년보다 감소하거나 유지됐다. 특히 90세 이상 연령층의 사망률이 188.1명으로 전년(194.7명)보다 6.6명 줄었다.

사망률 성비는 1.2배로 남자 사망률이 여자보다 높은 편이다. 특히 50대의 사망률 성비가 2.8배에 달했다. 지난해 사망자 중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73.1%다. 주책은 16.6%, 기타(사회복지시설, 사업장, 도로 등)는 10.3%다.

지난해 자연증가수(출생아수-사망자수)는 16만7200명으로 전년(17만200명)보다 3000명 감소했다.

◇작년 혼인, 전년보다 5.3% 감소...이혼은

0.3% 증가=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5600건으로 전년보다 5.3% 줄었다.

지역별로 부산이 8.7%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혼 건수는 11만5600건으로 전년보다 0.3%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혼인 건수는 3만43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3000건) 감소했다. 이혼 건수는 99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100건) 떨어졌다. 지난 1월 중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서울·부산·경북 등 8개 시도,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대구·인천 등 8개 시도, 인구가 동등한 지역은 광주·충남 등 8개 시도였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21%로 전년 동월 대비 0.06%포인트 늘었다. 지역별로 세종과 경기·인천 등 8개 시도는 증가했고 서울·부산·경북 등 9개 시도는 줄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경기 불황과 늦은 결혼에 따른 아이 낳기 기피가 심해지고 청년 세대의 고용 불안정이 겹쳐 저출산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 중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광주일보 자료사진>

돈없어 애 못낳는다고? 양육비용, 출산결정에 영향 적어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

영유아의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이 아이를 낳겠다는 부모의 결심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7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최근보고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출산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한국아동패널(2008~2012년)과 여성가족패널(2007~2012년)의 가입연령 여성의 출산 행태를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예상 양육비용은 대체로 여성의 출산 확률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 대졸 미만 여성의 경우 출산 확률에 약한 영향을 줬다.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양육비용이 매월 10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출산 확률은 0.6%씩 하락했다.

이는 다른 변수는 제외한 채 산출된 수치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고려할 경우 영향은 더 작아진다.

보고서는 "영유아시절 예상되는 양육비용과 실제 출산행태 사이에서는 매우 약한 연관성이 확인됐다"며 "영유아의 양육비용이 예비 부모가 생각하는 전체 양육 비용에 비해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모가 느끼는 양육 비용에는 자녀를 가집으로서 수반되는 심리적, 잠재적 비용까지 포함되는데, 이에 비하면 영유아 시기 소요되는 직접 비용은 출산 결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극히 작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북구, 사회복지업무 전담부서 이달중 새청사 복지누리동으로 이전

광주시 북구 복지정책과 등 사회복지업무 전담부서가 이달 중순에 새 청사(별관)인 복지누리동(사진)으로 이전한다.

2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8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선거관리위원회와 북구청 민원인 주차장 사이에 연 면적 999.7㎡(302.4㎡·19억3000만 원) 규모의 사회복지업무 전담부서 건물인 5층짜리 복지누리동을 새로 지은 뒤 준공식을 가졌다.

구는 이달 중순까지 복지정책과·복지관리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 등 복지관련 4개 부서를 복지누리동으로 이전한 뒤 보다 전문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기존엔 사무실이 비좁고 민원인 주차장과 복지전담부서 사무실간 거리가 다소 멀어 거동이 불편한 민원들이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관련 4개 부서 직원들이 떠나고 나면 청사와 떨어져 외부 건물에서 근무하던 문화관광과·도시재생과 소속 직원들이 해당 사무실을 차지하게 된다. 나머지 2개 사무실 공간은 각종 직원 동아리방이나 여성커뮤니티센터로 활용된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명품 도심 건강길 걸으면서 건강 챙기세요.”

광주시 동구에서 지정한 명품 도심 건강길인 '8도(八道)가 주민들의 건강길로 각광받고 있다.

2일 현재 동구의 팔도는 ▲무등산 자락 다남길(1.3km·지산유원지~동적골 산책로) ▲동적골 산책길(1.5km·동산마을~동적골 체육센터) ▲푸른길(2.8km·조대정문 사거리~계림1동 푸른길 광장) ▲너릿재 명품숲길(2.3km·선교~너릿재 정상) ▲너릿재 누릿길(1.5km·선교 삼거리~선교저수지) ▲무등산 진

“명품 도심 건강길 걷고 건강도 챙기세요”

광주 동구 '八道' 각광...하루 평균 1만여명 이용

입로번 숲길(3.5km·남광주사거리~중심사 주차장) ▲읍성길(2.1km·장동 로터리~대성학원) ▲전당 예술길(2km·민주인권로~대인시장) 등이다.

이들 건강길의 공통점은 나무·하천 등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도심 속 하늘 숲길로, 대부분

도심재생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이 즐겨찾는 장소가 됐다.

하루평균 이용자 수만 대략 1만 명. 구는 이들 팔도를 더욱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매월 첫 주 토요일을 '걷기 실천의 날'로 정한 뒤 걷기 캠페인은 물론 올바른 걷기 자세 안내활동

을 펼 예정이다.

구는 특히 올바른 걷기 자세와 걷기 효과 등의 정보가 담긴 안내도를 팔도 입구에 설치, 걷기 실천운동을 확산할 계획이다.

입영일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꾸준하고 적당한 걷기 운동은 체중을 줄이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다”며 “올바른 걷기운동이 무엇인지 바로 알면 건강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내 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hello cam

실시간 우리집 안심 지킴이 홈CCTV 헬로캠 탄생!

월 7,000원 (부가세 포함 7,700원)

※출시기념 혜택 지금 가입하시면 16GB SD카드 증정(1,000대 한정) - 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 / 무선공유기 임대료 별도

“학교 잘 다녀왔어?”
“숙제는 잘 하고 있지?”
“오늘 간식은 뭐 먹었?”

www.cjhellovision.com